

용안생태습지 명소화 도전

익산시, '국가정원 지정·관광 활성화' 투트랙 전략 TF팀 활동 본격... 시설조성반 등 4개반 유기적 협조

익산시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국내 최대규모의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특히 시는 용안생태습지를 지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해 국가정원 지정을 받도록 시·군·읍·면·동별 관광활성화위원회를 유도시할 방침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을 주재로 용안생태습지 국가정원 추진 현황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TF팀 회의가 지난 5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생태습지 인근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노후시설과 산책로 정비, 내부관광 순환 차량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금강변에 위치한 용안생태습지는 난포리 일원에 67만㎡(20만평)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생태습지 공원으로 청개구리, 풍령이 광장 등 4개의 광장과 아이화습장, 조류 관찰대, 전망대, 역사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익산시가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국내 최대규모의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인근에 조성된 4km에 이르는 바람개비길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며 저녁이면 금강과 역사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용안생태습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전국 대표 관광도시로 탈바꿈이 기대된다.

정현을 시장은 "금강과 연계한 용안생태습지를 활용해 관광도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관계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전국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가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우체통거리 주민거점공간인 홍보관 개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군산 우체통거리 홍보관 개관식 성료

군산시가 소규모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우체통거리 주민거점공간인 홍보관 개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우체통거리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의 대표사례로 손꼽히는 전국적 명소로, 홍보관 개관을 통해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인 주민공동체 활동이 가능해졌다.

특히 홍보관은 군산우체통거리관광협정위원회(이하 운영회)에 속한 주민이 소유 건물을 5년간 무상임대해 '주민주도의 거리활성화'를 실감케 한다.

홍보관은 운영회의 거점공간 역할과 동시에 인근 주민공동체와의 화합과

협동 위한 시당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캐릭터우체통 제작부터 이렇게 우체통모양의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하기까지 한마음으로 힘쓰신 주민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제2, 제3의 우체통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체통거리는 2020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30선 선정,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도시재생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전국적 귀감이 되며 군산의 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 국제교류교육원, 협력국가 다변화

영어권 대학과 온라인 교류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더블린 시티 대학교와 학생 및 학술 교류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 결과 양교는 학생 및 학술 교류를 통한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은 최근 코로나19로 변화된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매체를 활용,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다양한 영어권 국가 대학교와 교류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속에서 맺어온 영어권 국가 대학교와의 교류협력 관계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 상호 학생 파견 및 대학 관계자의 상대 대학 방

문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영어권 대학교의 교류협력 관계 확장은 군산대학교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코로나19 종식 이후 군산대학교 재학생들의 해외 연수 기회를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관광활성화 TF팀 구성 전문가 특강 통한 역량 강화

군산시가 고군산 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업무보고회와 간부회의를 통해 고군산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부서별

협업을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군산시는 ▲고군산 관광 활성화, ▲어민 소득 증대,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섬관광 활성화팀, 인프라 구축팀, 행정지원팀 등 총 3개팀 12개 부서로 고군산관광활성화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일에는 김임준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TF팀 소속 국·과장 및 담당 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이 날 특강은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정태균 섬 전문위원을 강사로 초청,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 지속 가능한 섬'이라는 주제로 전라남도의 섬 관련 주요 정책과 '가고 싶은 섬' 사업 성공사례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군산=남현봉 기자

김임준 시장, 주요 의원 면담 현안 등 예산확보 건의 활동

김임준 군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9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주요 의원들을 만나 군산시 현안과 주요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강 시장은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국회단체 중점 확보대상 사업의 국비확보 방안 등에 논의했으며, 예결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 이상직 의원, 정운천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군산시가 중점을 둔 내년 예산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50억(총사업비 240억)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20억(총사업비 40억) ▲비대면 시장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 5억(총사업비 15억) 등이다.

먼저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

후 군산 조선산업의 생태계 붕괴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과 한국판 뉴딜 발표 및 전세가격 인하추진 추세로 해양에너지 관련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종환을 통한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지원역량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군산과 충남 서천을 잇는 상징성 있는 동백대교를 제시하며 그간 국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통해 국내 관광 수요증가에 맞춰 랜드마크화하고 전북·충남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사업이라며 내년도 예산변영을 건의했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 정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달의 명수를 설명하며, 대기업 목적 및 온라인 소용몰에 잠식당하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주도 선도사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기한 12일까지 연장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마감 기한을 4월 연장해 오는 12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온라인 접수는 종료됐고, 연장기간 동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은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며,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사안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되고 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지급액은 지난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병원 원캘러리 김원진 교무 서예전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 외래동 1층에 자리한 원캘러리에서는 원산 김원진 교무의 서예전이 열리고 있다.

원광대병원은 환자 및 내원객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적 수혜가 적은 지역민의 문화적 소양 의식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전시회를 열어 왔는데 그동안 시행해 온 전시회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10여년의 세월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다. 특히 이번 전시회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지고 생활의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과 마음에 풍족한 여유가 깃들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2020년 들어 11번째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는 원산 김원진 교무의 서예 전시회가 환자 및 내원객과 지역민들 앞에 선 보였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